

오키나와· 헤노코에서의 미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경과 보고

오키나와· 헤노코에서의 미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경과 보고

아지토미 히로시[安次富 浩](헬리콥터기지건설반대협의회)

향후 투쟁 전망

☆ 현지사(縣知事) 선거 승리가 헤노코 신기지 건설 반대 투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싸움에 있어서의 우리 입장

① 현민(縣民) 여론을 배경으로 하여 이하(伊波) 기노왕시(宜野灣市) 시장과 연계함으로써 미일정부에게 후템마(普天間)기지 즉각 폐쇄와 조기 반환을 향한 투쟁을 고양시킨다—미국 시민들을 향한 호소(오키나와 듀공(Dugon)재판).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야간훈련의 격화--미일지위협정 개정, 미군항공시설정합이용구역계획설명서 위반--안전기준 위반 등등.)

② 패트리엇 미사일(P A C 3) 배치 반대 문제와 연결시켜 섬 전체가 함께 하는 투쟁을 벌임!--억지력의 유지 내지 대폭 향상, 부담 경감은 거짓말.

(현민의 안전을 지켜 주니까) 미군에게 감사해야 한다--큐마장관의 발언.

미군 MV-22 오스프리 배치. 터치앤드고 훈련을 시사함. V 자형 활주로 4 개의
진입등(進入燈), 착륙구속장치 설치 검토, 주택지역 상공 비행--
긴급시(운용상)를 이유로 삼아 기지의 자유로운 사용을 의도함.

③ 카데나기지 이남의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함--새 기지 반환 액션
프로그램 책정. 헤노코 이전과 관련된 패키지방식의 카데나기지 이남의 기지
반환에 관하여,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스스로 폭로함.

④ 미군기지 내에 매장된 문화재의 철저한 조사에 의한 유적보존. 기지기능
마비를 기도함.

일본 정부로부터의 공격

① 일본 정부는 현지사 권한인 공유수면매립신청에 대한 허가권을
박탈함. 특별조치법 입법화에 의한 강압적인 대응--오키나와 지역에 한정된
법인가, 전면적인 법률인가?

주류군재편원활화특별조치법 도입을 검토.

② 북부 진흥책에 폭 빠져 있는 신기지건설 용인파에게 성과급 방식으로
협박하고 지역주민들의 분단대책을 치열하게 벌일 것임(타카이치
오키나와장관이 기지 건설과의 연결론을 전개했음).

③ 신기지 건설을 위한 제작업들을 강행함 반대운동에 대한
공권력을 휘두른 탄압--타이라 나츠메목사 부당 체포.

④ 오키나와 진흥책 등 혁신현정(県政)에 대한 경제적 압박.

☆ 현지사선거 패배가 헤노코신기지건설반대투쟁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힘든 투쟁이 계속된다. 포기함은 패배의 시작이다.
질김(끈기)가 전망을 갈라 연다. 지혜(인문학?)는 어려운 투쟁속에서
태어난다.

① 신기지건설기본계획(마스터플랜)이 명확하지 않다.

② 캠프 슈웍 내의 병사등 이전과 더불어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의 취급에 대해--
문화재보호위원회, 고고학자와의 연계를 어떻게 하는가?

③ 연도내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어세스먼트)의 방법서에 대한
대응--오키나와듀공 감시단의 활성화.

☆ 국책과의 대결

① 방위문제는 국가의 전관사항인가!--태평양전쟁에 의한 2000 만 이상의 아시아
제국민을 희생자로 몰아넣은 침략전쟁의 총괄적 반성. 위안부문제, 오키나와전,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원폭,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권에 대한 공폭 등등 국민자신의 비참한 전쟁체험의
인식과 전쟁책임의 추급.

② 잘못된 국책에 대해 민중은 저항하는 권리(저항권)를 가진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천이다.

☆ 우리가 원하는 것! ① 모든 군사기지의 철거 및 해체--전쟁은 최대 최악의 지구환경파괴를 초래한다. 군사기지는 악취를 내보내는 대형 쓰레기이다.

② 유구열도(琉球列島)에서의 자연환경의 재생--세계자연유산등록.

- 오오우라망(大浦灣)에서 헤노코 수역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바다를 오키나와듀공보호구역으로 설정.

- 산호초의 재생.

- 절멸직전인 오키나와듀공을 수천마리까지 증가시켜, 유구왕부(琉球王府)시대에는 미야코(宮古), 야에야마(八重山), 아마미제도(奄美諸島)까지 생식하고 있었던 오키나와듀공의 생식범위를 넓힌다.

- 다음 세대를 살게 될 아이들, 손자들에 바톤 터치.

③ 비무장평화지대--유구왕부시대 처럼 아시아제국과의 평화 및 교역(우호)의 현관이 된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창조한다. 태평양을 잇는 반기지평화 그리고 환경보호의 주민네트워크의 구축.

주: 항공시설정합이용존계획설명서(AICUZ): 미군기지주변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운용에 저해가 되지 않는 주변토지이용의 지침. 활주로 끝에서 900 미터의 토지금지구역, 3.6 킬로 범위를 사고 위험구역으로 설정. 주택이나 학교 및 병원 등의 설치를 할 수 없음.

주: 착륙구속장치(着陸拘束裝置 arresting gear)-- 고정익착륙장치(固定翼着陸裝置) 항공모함의 갑판 등 활주로는 짧은 조건 하에서 와이어를 써서 전투기 등을 강제적으로 정지시킨다.

【 경과 】

1995년 9월 4일- 미 해병대원에 의한 소녀강간사건 발생.

1995년 10월 21일- 8만 5천명의 현민이 미군병사 범죄의 근절, 기지의 정리축소 등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

1996년 4월 12일- 하시모토 수상 몬데일 미대사 회담. 후텐마기지의 5-7년 이내 반환.

1996년 12월 2일- SACO 최종보고. 오키나와 본토 북부 해안에 철거 가능한 대체시설건설.

1996년 12월 21일- 나고(名護) 시민투표 실시. 해상기지건설반대표
52% 획득하여 승리.

1998년 11월 15일 - 현지사 선거, 오오타(大田)혁신 현정 패배.
육상기지 안을 추진한 이나미네 지사 탄생.

1999년 11월 22일- 이나미네 지사가 헤노코 연안수역의 신기지건설
수용을 표명.

2000년 7월 21일- 오키나와 정상회담 (G8)가 개최.

2000년 10월 10일- IUCN (국제자연보호연합) 오키나와듀공 등의
보호권고를 채택.

2002년 7월 29일- 대체시설협의회가 헤노코 앞 바다
산호초상매립방식의 군민공용공향합의.

2003년 9월 25일- 오키나와듀공보소송을 제소.

미국문화재보호법(NHPA)를 근거로, 원고 듀공 등. 피고는 미국방부 및
럼스펠드 장관. 생물다양성 센터가 지원.

2004년 4월 19일- 헤노코 어항에서 나하(那覇)방위시설국이 보링조사에
착수. 지역의 “생명을 지키는 모임”(「命を守る会) 및 헬기 기지반대협회 및

현내 시민운동단체, 정당, 노조 등이 어항내의 작업현장사무소 설치 및 조사선 출항을 저지—어항 앞에서의 농성 시작.

2004년6월6일- 참의원의원 선거. 헤노코 이전반대의 혁신통일후보 이토카즈 케이코 (系数慶子) 씨 당선.

2004년8월13- 미 해병대 이와쿠니기지 소속 CH-53 대형헬기가 오키나와 국제대학 캠퍼스에 추락, 폭발.

2004년9월9일-보링(시굴)조사선이 오키나와 섬 남부의 항구에서 출항. 해상저지투쟁 시작.

2005년9월2일- 나하방위시설국 산호초 안에 설치한 보링(시굴)조사를 위해 사용하는 네 곳의 발판을 해체함.

2005년10월29일-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혁신과 재편>(중간보고) SACO 합의를 파기. 캠프 슈웍 연안안 결정.

2006년1월22일- 나고(名護)시장 선거. 신기지건설 반대파 후보의 분열로 패배.

2006년2월3일- <미-일 군사패편 기지강화와 싸우는 전국연락회> 결성.

2006년 4월 7일- 누카가 방위청장관와 시마부쿠로 나고시장 V자형 활주로 건설 및 연안 건설안 합의. 기노자촌(宜野座村) 촌장 등도 주택지 상공 비행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

2006년 5월 1일-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로드맵(최종보고)에 합의.

2006년 5월 30일- <재일미군의 병력 재검토에 관한 정부의 대처>각의(閣議) 결정.

2006년 10월 11일- 패트리엇 미사일(PAC 3) 카데나기지에 강행배치.

2006년 10월 19일- 헤노코신기지건설기본계획(매스터플랜) 책정합의연기.

2006년 10월 21일- 신기지건설의 마스터플랜 토의에서 미축 착륙구속장치(arresting gear) 설치검토. 고정익기(헬기 아닌 비행기)의 긴급시착륙을 목인(오키나와 타임즈) .

2006년 11월 1일- 이하 기노왕시 시장이 후텐마 비행장을 “안전부적격”으로 선언하다. 나하방위시설국 환경영향평가(어세스먼트)의 방법서작성에 관하여 업자와 위탁계약.

2006년 11월 6일- 미측 V자형활주로에 쌍방향에서 진입 및 이착륙 가능한 네 개의 진입등 설치를 요구. "주택지상공 비행을 피하는" 원칙을 포기.

2006년 11월 19일- 오키나와지사 선거 투표일

캠프 슈웍 내의 매장문화재조사에 관한 성명

나고시(名護市) 교육위원회 문화과는 나하방위시설국의 초회를 받아, 지난 9월 14일, 15일에 캠프 슈웍 내의 매장문화재의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다. 헬기기지건설반대협의회는 후텐마 기지의 이전과 더불어 행해질 문화재조사에 관하여, 매장문화재는 시민 현민의 역사적 재산이며??? 조사는??? 자주적 또 주체적으로 행하고, 매스컴이나 시민 및 현민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 현장에서의 항의행동을 전개해 왔다. 나고시 교육위원회와의 대화에서도 나고시의 독자적 예산으로

매장문화재조사를 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캠프 슈웍 내에는 온하라유적(思原遺跡), 온하라석기(思原石器)출토지, 온하라나가사쿠 유물산포지 (思原長佐久撒布遺物撒布地), 오오마타유적(大又遺跡)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또 이들 유적의 많은 부분들이 헤노코해안 측의 모래톱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래톱은 캠프 슈웍 소속의 해병대원들이 수륙양용전차의 운전이나 상륙연습을 반복하고 있는 장소이며, 매장문화재파괴의 가능성이 많이 우려된다. 이 캠프 슈웍 내의 네 장소에 있는 매장문화재는 오키나와 패총시대(沖繩貝塚時代)의 유적이며, 시민 및 현민의 귀중한 역사적 문화적 재산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키카이도(喜界島)에서는 10세기 경의 다자이후 (太宰府: 중앙정부의 서방 지방지역 통치 기관, 오늘 날의 큐슈 후쿠오카에 소재했음)의 지방기관이라고 추측되는 조큐유적군(城久遺跡群)이 발견되어, 아마미오오시마(奄美大島) 북부 코미나토 후와가네쿠유적에서 다수 발견된 야코우 조개로 만들어진 숟가락, 토쿠노시마(徳之島)의 카무이야키 옛 가마(토기를 제조한 터) 유적군 등을 포함해 패총시대에서 구수쿠시대(오키나와에서 성곽이 형성된 시대)로 이행하는 고류큐시대(古琉球時代)에 대한 재 검증이 시작되고 있다. 아마미군도와 가까운 헤노코 해병의 네 곳의 유적군(遺跡群)은 이들 유적들과 비교검증 및 해명이 필요한 귀중한 유적임에 틀림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고시 교육위원회에게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현민의 귀중한 역사적

문화적 재산인 네 곳에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인 철저한 조사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헬기기지건설반대협의회는 후텐마 비행장의 대체시설인 신비행장건설을 일관해서 반대해왔다. 신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나하방위시설국 주도의 성급한 조사는 조잡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신기지는 후세의 사람들에게 귀중한 문화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의 항목에 관하여 나고시 교육위원회 및 현민에게 널리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

- (1) 사업자인 나하방위시설국은 재오키나와 미군사령관한테 캠프 슈웍 내 네 장소군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안선을 이용한 해병대원의 상륙 연습이나 수륙양용전차의 주행연습 등의 중지를 제의하고 유적군의 보존을 기도할 것.
- (2) 나고시 교육위원회는 유적파괴를 전제로 한 방위시설청 예산에 의지하지 않고 문화청 예산에 의거한 나고시의 독자적 예산을 가지고 발굴계획, 조사, 유적보존을 행할 것.
- (3) 시민 및 현민의 귀중한 재산인 매장문화재 발굴을 할 때 그 발굴자를 연구자, 매스컴 관계자 및 현민에게 널리 공개할 것.
- (4) 발굴조사를 할 때 나고 시내의 아동 학생들에게 선인들이 남긴 유적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발굴체험조사를 가능케 할 것.

2006년9월20일 헬기기지건설반대협의회